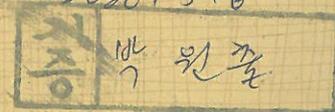


제 14회 3.1운동 제암·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위령식

제암·고주리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학술 발표회

- 일 시 : 2013년 4월 14일(일) 12:00
- 장 소 : 제암문화관
- 주 최 : 천도교청년회 경기연합회
- 주 관 : 제암·고주리 추모사업위원회
- 후 원 : 천도교중앙총부, 화성시, 천도교청년회



제14회 3.1운동 제암·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위령식

제암·고주리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학술 발표회

- 일 시 : 2013년 4월 14일(일) 12:00
- 장 소 : 제암문화관
- 주 최 : 천도교청년회 경기연합회
- 주 관 : 제암·고주리 추모사업위원회
- 후 원 : 천도교중앙총부, 화성시, 천도교청년회

제14회 3.1운동 제암 ·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
학술 발표회

주제 : 제암 · 고주리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사회 : 임형진(경희대 교수)

- | | |
|----------------------------------|-------|
| ■ 기초강연 : 【 3·1 독립운동과 의암 손병희 】 | -- 5 |
| 강연 : 박성수(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
| ■ 주제발표 : 【 3·1 독립운동과 제암리 교회 사건 】 | -- 25 |
| 발표 : <u>모리 야스로(와세다대 교수)</u> | |
| 토론 : 성주현(청암대 교수) | |

< 重要 資料 >

3·1 독립운동과 의암 손병희

박성수 /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2. 일제의 원천적 역사 왜곡
3. 3·1운동의 내재적 원인
4. 손병희와 「연성수련회」
5. 교도 3백만을 호령하다
6. 독립선언이나 독립청원이나
7. 한반도의 기적, 세계의 위인 손병희
8. 맺는말

기미 3월 1일. 대한의 독립을 선언한 날. 그날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처음 대한독립 萬歲聲이 발한 때. 이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賢. 이 날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자유를 외치다가 피를 흘린 이들에게 영원한 감사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날에 맺은 三章. 피로 맺은 굳은 언약을 대한인은 잊지 말지어다. 健忘하는 大韓人. 反復하는 大韓人. 그 건망과 반복의 惡을 3월 1일의 열혈로 다 씻어버리고 신성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 깨끗이 이행할지어다.

1)

1. 머리말

천도교는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종교로서 기독교와 불교까지도 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3·1운동을 명실 공히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시켰다. 여기에는 천도교 3세 교조 의암 손병희(義菴 孫秉熙 1861-1922)의 지도력이 절대적이었다. 만일 그가 아니었다면 아니 천도교가 아니었다면 과연 3·1운동이 그토록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묻고 싶다. 1922년 손병희 선생은 옥고로 인하여 순국 순교하셨는데 당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하던 『독립신문』은 선생을 한반도의 기적이요 세계의 위인이라 격찬하며 다음과 같이 애도하였다.

2천만 배달민족을 대표하여 반만년 대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선언한 손병희 선

1) 3·1절 (『독립신문』 1920.3·1)

생이 마침내 별세하였다. 선생은 한반도의 기적이요 세계의 위인이니 실로 선생은 우리 민족의 冠冕이요 영예라 할 것이다. 2)

실로 대한민국은 선생이 주도하여 일어난 3·1운동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어 이듬해 3월 1일 최초의 3·1운동을 맞이하였을 때 독립신문은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 대표를 33賢이라 추앙하면서 공약삼장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健忘하는 大韓人. 反復하는 大韓人들아 공약삼장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를 잊지 말라.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건망증은 1년도 못되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어떤가. 민족대표 손병희는 9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 결 같이 잊지 않고 추앙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은 물론 일부 좌편향 사학자들은 선생과 민족대표 33인을 폄하하기도 하였다. 역사가의 역사적 비판이란 절대 경솔해서는 아니 된다. 오로지 마르크스의 말씀만 옳다 하여 민족의 현인들과 3·1운동을 비판 폄하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2. 일제의 원천적 역사 왜곡

33인을 비판하는 역사가의 일부는 3·1운동이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아니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뇌동하여 일어났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일제침략자들이 꾸며낸 논리로서 3·1운동이 일본에서 일어난 《쌀 소동》과 같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다. 나아가서는 손병희 선생에게 민족고유의 독립정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일본교과서에 3·1운동을 독립운동이 아닌 《폭동》이라 기술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혼란스런 상태를 이용하여 북한에서는 심지어 3·1운동은 서울보다 평양에서 1시간 먼저 일어났으며 그 주동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국이었다고까지 왜곡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가 기록되어 오르는 촌극 이상의 괴변인 것이다. 이러다가는 나이 8세의 김일성이 3·1운동을 일으켰다고 가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여도 3·1운동과 시대를 함께 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들은 3·1운동을 서양에서 들어온 정치 이데올로기로 오염된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 1859-1926)의 3·1운동 기술이 그 좋은 예이다. 박은식은 『獨立運動之血史』에서 3·1운동은 일제의 종교탄압과

2) 故 손병희 선생을 弔하노라 (독립신문 1922. 5. 27)

이에 대한 종교계의 반동으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 정도로 3·1운동과 종교계의 관련은 밀접하였다는 것이다. 박은식에 따르면 일제의 탄압을 가장 많이 받은 종교는 대종교였고 그 다음이 기독교, 셋째가 불교, 넷째가 천주교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천도교는 일제의 탄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다. 천도교는 일제의 음성적인 탄압을 받아 겉으로 들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천도교를 공인하고 대종교를 불법화시킨 일제의 종교정책은 큰 실수였다. 그로 인해 천도교는 국내에서 살아남아 3·1운동을 주도하였고 대종교는 총본사를 서울에서 백두산 북쪽의 和龍縣으로 옮겨야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종교 교주 홍암 나철은 1916년 구월산에서 순교하였다.

박은식에 따르면 대종교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민족 고교古教였고 천도교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민족 종교였다. 따라서 천도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대종교 못지않았던 것이다. 박은식에 따르면 일제가 천도교를 공인한 것은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며 일본의 국가종교 神道를 조선에 끌어들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총독부에서는 천도교의 교도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이 더욱 싫어하여 만약 천도교를 해산하면 반듯이 천도교도들이 기독교로 들어가게 되어 그 세력이 증가함으로 감히 해산하지 못하고 음으로 속박하고 제한하여 방지할 계획을 세웠다. 3)

이처럼 나라를 잃은 이 민족이 다투어 종교에 의지한 것은 국권을 상실하고 토지까지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민족이 외래종교인 기독교보다도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선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일제는 대종교와 천도교도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결코 늦추지 않았다. 저들의 탄압 방법은 음성적이고 교활하여 얼핏 보기에는 탄압하는 것같이 않았다. 그러나 일제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통치방법을 배워 음성적인 탄압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일제의 천도교 탄압은 다음과 같이 음성적이었다.

일제는 천도교를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날마다 경찰을 파견하여 서울의 중앙총부와 지방각지의 敎區를 감시하며 달마다 재무, 회계의 장부를 보고하게 하고 없는 흠을 억지로 찾아내어 징발을 자행하였다. 천도교의 시일侍日 즉 예배일이나 집회나 강연이 있는 날이면 반드시 먼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헌병과 순사의 감시가 있었다. 그 강연 내용이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한 구절을 따내어 구속, 심문하였다. 또 매년 세 번째 기념식으로 거행되는 인일人日(3세 교조 손병희의 수도일受道日)기념일에는 줄지에 많은 경관이 출장하였고 교경教經의 출판과 월보月報의 발행 및 강습소는 다 금지하였다. 4)

3) 박은식 독립운동지혈사

그럼으로 일본 헌병경찰은 천도교의 각종 축일 기도 일에는 반드시 경찰을 보내 감시 수사 또는 체포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출판물 또한 검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일제의 감시 속에서 천도교는 언제 어떻게 3·1운동을 획책하고 준비하였는가. 일제의 조사에 따르면 천도교의 3·1운동 계획은 3·1운동 3개월 전인 1918년 12월경 선생이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 3인에게 “人命을 바쳐 조국을 위해 노력하라”고 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천도교 중앙총부의 원로 권동진과 오세창은 1918년 12월경 여러 차례 회합하여 세계정세를 논하고 지금이야말로 조선독립을 기획할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천도교가 경영하는 보성고등학교장 최린과 만나 의견을 물은 바 최린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듬해인 1919년 1월 25,26일경 세 사람이 천도교주 손병희를 방문하여 이 계획을 설명한 바, 손병희는 “人命을 바쳐 조국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여 이로써 천도교의 방침이 결정되었다.⁵⁾

일제는 3·1운동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을 최린(1878-?), 권동진(1861-1947), 오세창(1864-1953) 등 3인으로 보고 이들 세 사람이 협의한 끝에 1919년 1월 하순 천도교 교주 손병희 선생을 찾아가서 그 재가를 얻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암 손병희의 전기에 따르면 선생이 세 사람을 만난 것은 1월 하순이 아니라 1월 상순이었다고 하며 그 때 선생은 세 사람에게 “내 이미 정한바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장차 우리 면전에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차대하다. 우리는 천재일우의 호기를 무위무능으로 놓쳐버릴 수 없다. 내 이미 정한 바 있으니 여러분은 더욱 분발하여 대사를 그릇됨이 없도록 하여주소.⁶⁾

그러면 “내 이미 정한 바 있다”고 한 말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민족대표 특히 3·1운동 발기자에 대한 일제의 음모는 무엇이었나를 알아보기로 한다.

권동진 오세창 최린 그리고 손병희 등의 4자 모임의 시기에 대해서 일본경찰은 1919년 1월 하순이라 하였으나 실은 더 소급해서 1918년 12월의 일이었다. 이것은 일제의 경찰조사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로 보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4) 조기주, 『東學의 原流』

5)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년

6) 義庵孫秉熙先生傳記

착오가 아니라 고의였다. 일제가 고의로 33인이 운동을 일으킨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일제의 최대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었다. 손병희 등 지도자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알고 나서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고 조작하는데 저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3·1운동을 계획한 네 사람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자극을 받아 타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다. 조선민족은 자율적으로 일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조선민족은 남의 말을 듣고서야 일을 저지르는 민족이라고 악선전하려 했던 것이다.

일제는 또 3·1운동을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하고 난동한 사건 즉 폭동”으로 규정하고 명명하기를 《騷擾事件》이라 하였다. 거기다가 더해서 3·1운동의 주동자들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속아 넘어갔다고 선전하면 3·1운동은 완전히 독립운동으로서의 순수한 성격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 사법관들은 3·1운동의 주동자들에 대해 끈질기게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알고 모의(?)했느냐 아니냐를 따져 물었다. 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였고 심지어는 유도신문까지 하면서 답을 얻어내려 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가 33인에게 얻어내려고 [모의]한 답은 3·1운동이 한국인 고유의 독립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일제의 왜곡음모는 3·1운동에 관한 저들의 다른 기록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3·1운동을 직접 유혈 탄압한 일본헌병경찰과 일본군의 기록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3·1운동을 난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들의 유혈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실 왜곡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과거 의병전쟁 때와 같이 3·1운동의 규모를 아주 작게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재미동포에 대한 여론 조사서를 보더라도 재미동포들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속아 날뛰고 있다고 왜곡 보고를 하고 있다. 우리 역사가들은 이러한 일제의 허위보고에 속아서 안 될 것인데도 수년 전 바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술회의가 열렸었는데 한 교수가 일제의 허위통계를 그대로 믿고 3·1운동을 거족적 독립운동이 아니라 극히 일부(2000만중 200만)의 독립운동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가 청중의 강한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다.

3. 3·1운동의 내재적 원인

그러면 의암 손병희가 “내 이미 정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었나? 손병희는 그가 3·1운동을 일으키기 7개월 전인 1918년 8월에 천도교 중진들을 자택으로 소집하고 “지금이야 말로 天地開闢할 때”라고 설교하였다. 손병희가 말한 천지개벽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신적 개벽이요 이신환성(以新換性)에 의한 인내천人乃天의 실현이었다.

손병희는 그 뒤 4개월만인 1918년 12월 18일에 또다시 이신환성을 강조하였다. 이 날은 천도교의 3대 기념일(천일 지일 인일) 중의 하나인 인일(人日)기념일이

었다. 이 날 손병희는 또다시 지방에서 상경한 교구장들 앞에서 이신환성을 강조하였다. 손병희는 각 교구장들에게 다음 해(1919) 1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49일 기도회를 열라고 명하였다. 이 기도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해주, 의주, 길주, 원주, 경주, 서산, 전주, 평강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도회야말로 3·1운동에 대비하여 천도교가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온 정신수련회의 마지막 모임이었는데 여기서부터 3·1운동은 계획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천도교의 3·1운동 계획과 준비는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3·1운동의 발기와 계획은 1918년 연말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준비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천도교 교주 손병희에 의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경찰은 겨우 3·1운동이 일어나기 한두 달 전에 3·1운동의 모의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경찰조서로서도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 보고였다. 천도교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연성회煉性會라는 교도수련회를 통해 3·1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가 3·1운동의 준비단계를 무시한 것은 3·1운동이 러시아혁명(1917년)이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1918)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으로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해 초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3·1운동을 절대 세계사조와 시대의 격변에 흔들려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며 우리 민족 고유의 독립정신이 발동하여 일어난 운동이라 선언하였다.

우리의 금번 독립운동은 2천만 민족의 두뇌에 固有한 獨立性으로 發動됨이요 결코 세계의 신사조와 시대의 激感에 被動된 바 아니다. 7)

즉 우리 민족의 두뇌에 민족 고유의 독립정신이 박혀있어 그것이 3·1운동으로 발전한 것이지 세계의 신사조에 격동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후 33 대표가 옥중에서 毒刑으로 死境에 임하고 있으며 후계의 수십만 健兒가 혹은 총살 혹은 刑殺 당하여 삼천리강토가 鮮血로 물들어 있지 않는가. 8)

3·1운동은 또한 소요가 아니었다. 평화적인 독립 만세시위운동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총칼로 3·1운동을 탄압하였고 그 결과 삼천리강산이 선혈로 물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헛되지 않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10년간 끊어졌던 5천년 우리나라의 國脈이 이어졌고 식미지로 화했던 온 국민이 독립의 희망을 갖고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을 당시의 독립신문에는 그 옛날 고조선의 국혼이 되살아나서 신대한의 기초가 닦였다고 보도하였다.

7) 『독립신문』 1920.1.1

8) 如是觀 (2) 목당 (독립신문 1919.11.11)

3월 1일 오늘은 10년 동안의 굴욕을 설욕한 날이다. 배달 고족古族의 정신을 발휘한 날이다. 식민지가 되었던 삼천리 故土를 되찾은 날이다. 끊어졌던 5千年 歷史를 계속한 날이다. 고조선의 국혼國魂을 환기한 날이다. 신대한의 기초를 건설한 날이다. 아아! 3월 1일야! 우리민족의 영구한 기념일이다.⁹⁾

4. 손병희와 「연성수련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1운동의 도화선은 천도교의 연성수련회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 모임은 3·1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도 경술국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7월 2일, 경술국치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손병희는 일반 교도들에게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이제 몇 해를 지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만고에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고 예언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군주가 있고도 군주의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오. 군주가 마음대로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찌 국가라 말할 수 있겠는가.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뜻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겠는가. 지금 박사나 학사나 하는 사람을 물론하고 매국노까지라도 우리나라 잘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능력이 없으므로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장담하노라. 이제 몇 해를 지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만고에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비상한 결심부터 가져야 한다. 자기 스스로 비상한 결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餘風에 놀아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지 두 달이 못되어서 나라가 망했고 교도들이 비상한 결심과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손병희가 연성회라는 이름의 수련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21명 그리고 49명 단위로 했던 것을 끝에 가서는 105명 단위의 수련회로 확대되었다. 이 연성 회야 말로 3·1운동에 대비한 준비요 정신운동이었던 것이다. 손병희는 이 연성회에서 자신이 창안한 천도교의 원리 人乃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신환성以身換性을 강조하였다. 연성이란 인간의 본성이 천성인데 이 천성을 기르는 수련회가 바로 연성수련회였다.

정확히 말해서 1912년 4월 15일부터 1915년까지 3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각각 49일간의 연성회를 열었는데, 총일 수가 343일에 이르렀다. 장소는 서울 우이동의 鳳凰閣이었고 전국의 교구장 483명이 이 수련회에 참가하였다. 이 483명이 3·1

9) 『3월 1일 새벽에』 조덕진 (『독립신문』 1920. 3. 1)

운동 준비요원이었던 것이다.¹⁰⁾

 [별표 1] 우이동 봉황각 특별연성회(1912-1914)

제1회 연성 참가인원	21명	1912년 4월 15일
제2회 연성 참가인원	49명	1912년 8월 15일
제3회 연성 참가인원	49명	1913년 1월 1일
제4회 연성 참가인원	49명	1913년 4월 6일
제5회 연성 참가인원	49명	1913년 11월 1일
제6회 연성 참가인원	105명	1913년 12월 18일
제7회 연성 참가인원	105명	1914년 3월 25일
(총계 483명)		
*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14년 7월 28일
* 미국의 참전		1917년 4월 16일
* 윌슨의 강화14개조 발표		1918년 1월 8일
손병희, 천지개벽 역설		1918년 8월
* 독일의 항복		1918년 11월 11일
손병희, 인일기념일 연설		1918년 12월 24일
천도교 49일 기도회 돌입		1919년 1월 5일
손병희 등 상춘원 회의		1919년 1월 상순
* 손계백, 2,8독립선언서 갖고 귀국		1919년 1월 중순
손병희 등 가회동 회의		1919년 1월 중순
* 파리강화회의 개최		1919년 1월 18일
* 고종황제의 승하		1919년 1월 21일
* 동경유학생의 28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3·1독립운동 발발		1919년 3월 1일

그러면 교조 손병희 선생은 연성수련에서 교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일찍이 선생은 10년 전인 1902년에 유명한 「三戰論」을 발표하여 “도道 앞에 대적大敵이 없다”는 소위 道戰論을 역설한 바 있다. 그 뒤 이용구 등이 일진회라는 매국단체를 조직하자 이들을 천도교에서 출당黜黨하였고 1910년에는 국망國亡의 서러움과 무단정치의 굴욕을 맛보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병희는 한층 더 강한 어조로 교도들에게 人乃天思想을 역설하였고 以身換性으로 道戰하라 즉 도로써 싸우라

10) 趙基周, 『東學의 原流』 천도교중앙총부, 1977 pp. 308-342 『東學의 原流』 저자 趙基周의 약력 ; 1894년 평북 박천에서 동학 집주 조경로의 3남으로 출생. 1912년 천도교 교역자로 입교 일생을 천도교에 봉사하였다. 1951년 1.4 후퇴 때 월남하여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장 중법사(천도교 최고 예우직) 등을 역임하였다. 1972년 당시 89세였다.

고 강조하였다.¹¹⁾

그동안 연성회에서 손병희가 교도들에게 가르친 법설法說과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천도교가 이미 그때 독립운동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때가 3·1운동 7년 전인 1912년이였다.

손병희는 1912년 4월 15일에 열린 제2회 연성수련에서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신환성에 있다고 하면서 이신환성이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성의 妙法은 以身換性에 있다. 이신환성이란 有形한 ‘나’ 를 무형한 ‘나’ 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身邊世事에 분주한 ‘나’ 를 性中大事의 ‘나’ 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만일 육신의 ‘나’ 로부터 생기는 모든 인연을 끊는다면 그 순간 本然한 性靈의 ‘내’ 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평소에 견실한 수양을 쌓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니 이것은 그대들이 반드시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결심은 쉬우나 평생을 통한 결심으로 수양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어 1913년 1월 1일에 열린 제3회 연성수련회에서 교도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문] 大神師님(水雲 大神師)께서 다시 出世하신다고 하니 사실입니까?

[답] 性靈으로 출세하실지 肉身으로 출세하실지 알 수 없으나 다시 출세하실 것만은 분명하다.

[문] 그러면 누구나 뵈올 수 있을까요?

[답] 정성이 지극하면 뵈올 수 있느니라.

[문]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답] 이번 49일기도를 마치는 날쯤에 출세하실 것이다. 그러나 육신으로 다시 출세하는 것은 천하에 없는 일이니 육신출세야 바랄 수 있겠으나마는 설사 육신으로 출세할지라도 그대들의 수련이 부족하면 대신사를 뵈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사의 출세 여부는 그대들의 수련 독실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니라.

[문] 대신사께서 출세하시면 서울에 계신 교인들은 뵈올 수 있으나 지방에 있는 저희들은 좀처럼 뵈올 수 없을 것이며 또 출세하시어 그냥 계시지 잠시 출세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으니 만약 대신사께서 출세하시면 각 지방에 통지하여 주옵소서.

[답] 통지하여 드리고말고요. 그러나 서울에 있어도 못 뵈올 교인이 있으니 부인께서는 위선 서해바다 위로 올 자신이 있을 만큼 지극한 정성으로 수도를 극진히 하십시오.

11) 삼전론 『신동아』 부록, [近代韓國名論說集] 동아일보, 1966 pp. 40-43

1913년 4월 6일에 열린 제4회 연성수련회에서 손병희는 사람은 모름지기 천하대사를 가지고 다투어야지 대장부가 이 시기에 집안 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은 큰 일大事에 임해 반드시 목숨을 바칠 것이라 다짐하였다.

道는 家道和順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사께서 역설하신 것이니 수도의 극치는 夫和婦順이다. 天下大事는 다투지언정 가정에서야 다투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은 아무리 聖人이라도 죽기 전에는 그 인격과 명예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큰 성인은 큰일을 당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하대사 즉 大事 큰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손병희에게 있어 천하대사²란 나라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을까. 3·1운동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이미 손병희는 큰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4년 1월 1일에 열린 제5회 연성수련회에서는 그의 「이신환성」에 대해 되풀이 해설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한울님과 통하게 되면 만사가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

내가 누누이 [이신환성]에 대하여 말하였거니와 性靈은 불생불멸하므로 氣數가 능히 제어하지 못하나니 진실로 오는 禍를 면하고자 하면 성령과 육신을 바꾸어 믿는데 있느니라. 즉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고 육신이 객체가 되어 위로는 대신사와 같이 大覺할 것이요 아래로는 가히 육신의 화를 면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대사란 국가의 일이며 대사를 이루려면 종교적으로 각자가 대각하여야 하며 각자가 대각하면 만리만사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하였다.

오늘의 일은 국가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물론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사람은 큰일을 하려면 종교적 수련이 있어야 하니 종교적 수련이 있으면 한울님의 감응을 받을 것이며 한울님의 감응을 받으면 萬理萬事가 無爲而化로 되는 것이요 한울님의 감응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1914년 4월 2일 하오 5시 25분. 마침내 대신사가 출세하였다. 손병희는 주요 교구장 74인을 서울 가회동 자택에 부른 뒤

大神師님께서 처음으로 출세하셨다. 이제 그대들은 다 대신사가 되었으니 대신사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성령 속에 출세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서구문

명의 몰락이 시작되는 사건이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시작으로 서구 문명이 지배하는 세계가 멸망하기 시작하고 다시 세계가 멸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운대신사의 출세란 대신^사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손병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시들이 하늘이요 바로 하늘 될 사람들이니 어찌 성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汝必天爲天者 豈無靈性哉) 라고 쓴 法文을 나누어주면서 “각기 돌아가서 3백만 신도들에게 내가 한 것과 똑 같이하라. 하였다.

이와 같이 특별 연성회는 모두 3·1운동이란 큰일을 앞두고 교도들이 먼저 신앙의 통일로 하나 되라고 기원하는 행사요 준비였던 것이다. 대신사는 육신으로 재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재림하신 것이니 이 점을 교도들에게 설명하여야 했다.

1914년 12월 24일 인일기념일식 후에 손병희는 지방 교구장들에게 수운大神師의 本旨가 무엇인가를 훈시하였다. 두말할 것 없이 대신사는 최제우(1824-1864)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가 재림한다는 것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으나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性靈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었다.

대신사의 본지는 첫째 수명이요 둘째는 복록이다. 대신사께서 일찍이 安心歌를 지어 이르시기를 “한울님께 福祿을 정해 壽命일랑 내게 비네” 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복록보다 수명 비는 일이 더 급하다. 수명을 비는 데는 개인의 수명도 중요하지만 蒼生의 壽命을 비는 일이 더 급하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지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心告드릴 때 “창생의 수명을 대신사님께 專託합니다” 라고 하여라. 12)

이상과 같이 손병희는 연성수련을 통해 교도들의 정신수양을 독려하였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세 교조 손병희 시대의 천도교는 “人乃天을 宗旨로 삼고 輔國安民을 이루려는 종교로 변신하고 있었다. 즉 인내천의 인간관을 기본으로 하여 정의로운 나라, 온 겨레가 하나 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그 뜻이었다. 보국輔國이란 잘 못된 나라를 바로 잡아 안민安民하자는 것인데 동학이 내어 걸었던 정지이기도 하였다. 안민이란 평등을 원칙으로 하여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복지사회를 실현하자는 뜻이었다. 이 같은 사회의 실현이 곧 「개벽」 이었다. 13)

손병희는 이미 1910년 경술국치 이전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나리란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고 일제가 무단통치라는 혹독한 야만정치를 시작하자 더욱더 개벽의 날이 다가 올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개벽이란 곧 광복을 의미하는 것

12) 趙基周, 위의 책. 천도교중앙총부, 1977

13) 표영삼, 동학의 종교사상 [동학연구 창간호] 한국동학학회 1997, 118쪽

이었다. 일제의 엄격한 감시 하에서는 개혁의 참뜻이 광복이란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개혁의 참뜻을 인내천 이신환성이라는 매우 우회적인 말썸으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손병희는 먼저 개혁을 수운 대신사 최제우崔濟愚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것 즉 출세出世(再臨)하실 것이라 예언했다. 대신사의 재림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대세요 불가항력적 필연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신사의 재림은 우두커니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교도들에게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신환성을 통해 대신사의 재림을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사는 有形의 肉身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無形의 性靈으로 재림하는 것이다. 바로 내 마음속에 대신사가 재림하신다는 뜻이었다. 성령의 재림은 연성수련을 통해 교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실현된다는 뜻이었다. 연성수련은 지극한 「이신환성」의 수련을 의미하였다. 대신사가 출세(재림)하시면 무엇이든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즉 성령의 재림이 실현되는 날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즉 만리만사 萬理萬事가 무위이화無爲而化한다는 것이었다. 유형有形의 [나]는 죽어도 무형無形인 성령의 [나]는 죽지 않으니 목숨을 걸고 개혁하여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손병희는 세속적인 福祿을 빌지 말고 영원한 壽命을 빌어라 고 했다. 수명은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창생의 수명을 빌라는 뜻이기도 하였으니 곧 광복을 의미한 것이다. 독립운동은 곧 개혁운동이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5. 교도 3백만을 호령하다.

손병희는 끊임없는 연성회를 통해 간부 교도들의 정신수양을 독려하였고 이로 인해 교세 또한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1914년 7월 당시의 천도교 교도 수가 300만에 달했고 전국 교구 수는 대교구 37개, 교구 188개소 전교실 11개소 등 모두 236개 처에 달했다. 당시로서는 한국 최대의 종교였다. 3·1운동 당시의 일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동에 참가한 천도교도수가 기독교도수보다 3대2 정도로 많았다.

[별표 2] 전국의 천도교 대교구와 교구표¹⁴⁾

경기도	경성, 수원, 이천	(3 대교구)	16 교구, 3 전교실
충남도	서산	(1 대교구)	4 교구
충북도	청주	(1 대교구)	6 교구, 3 전교실
전남도	장흥, 수천, 강진	(3 대교구)	21 교구, 1 전교실
전북도	전주, 익산	(2 대교구)	20 교구

14) 조기주, 『동학의 원류』 포덕 55년대 323-4쪽

경남도	진주	(1 대교구)	7 교구, 1 전교실
경북도	대구, 경주	(2 대교구)	5 교구
강원도	춘천, 평강, 횡성	(3 대교구)	17 교구, 2 전교실
황해도	서흥, 안악	(2 대교구)	16 교구
평남도	평양, 강동, 성천, 중화, 덕천, 용강	(7 대교구)	21 교구
평북도	의주, 초산, 삭주, 정주, 선천, 영변, 귀성, 강계	(8 대교구)	24 교구
함남도	함흥, 영흥, 북청	(3 대교구)	13 교구 1 전교실
함북도	경성	(1 대교구)	18 교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도교의 교세가 가장 강성했던 1914년 7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 무렵의 교구표를 남북한으로 나누어 보면 남한에 16 대교구와 96 교구, 10 전교실傳敎室이 있었는데 반해 북한에는 21 대교구와 92 교구, 1 전교실이 있었으니 대교구수가 남한보다 북한에 더 많았다. 특히 평안남도과 북도에 15 대교구가 편재해 있었으니 천도교 세력이 평안도에서 가장 우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연성회는 그 뒤에도 계속되었고 손병희의 法說은 날이 갈수록 “머지않아 개벽이 온다.” 는 말로 맺어졌다. 그리고 개벽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자고 재촉하였다. 1915년 봄 아직도 3·1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이었으나 1백5일 기도회를 열고 손병희는 교도들에게 말하기를

방금 세계에 일대혼란이 일어나 인물상해가 더욱 심하리니 이것이 대신사께서 말씀하신 개벽운수이다. 이 時運變動에는 百萬大軍을 가지고도 막지 못할 것이요 黃金滿溢을 가지고도 贖하지 못하리라. 사람은 장래를 밝게 보는 것이 더 귀하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나라 내 민족과 천하창생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고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굴복시키려는 자가 있다면 내 이마를 갈고 발굽을 짊는다 해도 사양치 않으리라.

1916년 8월 14일 지일기념식이 끝난 뒤 다시 [이신환성]을 인내천이라고 설파하였고

인내천은 우리 교의 원리이다. 그러나 아직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내천이 바로 「이신환성」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20일 기도회에서는 꿈에서 본 이야기라 핑계하면서 개벽하는 날이 바로 「독립가」를 부르는 날임을 암시하였다.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내 연원 네 연원하면서 일단을 이루지 못하니 개탄할 일 이로다. 이래도 천도교인들은 일치단결하였다고 할 것인가. 앞으로 시각이 급박 하니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보국안민이 되지 못하면 연원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 내가 몇 해 전 어느 날 꿈에 어디를 가니까 한 神仙이 금과 옥으로 만든 소반을 가지고 오는 데 농부 백여 명이 길가에 모여서 獨立歌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꿈이라고만 생각할 것이냐?

이리하여 마침내 3·1운동 발발의 전해인 1918년 말이 되었다. 1918년 12월 1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대교당大敎堂의 기공식을 갖고 이어 동월 6일 전체 교인들에게 49일 특별 기도회를 명하였다. 이 기도회는 1919년 1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계속되는 41일간의 행사로서 3·1 거사를 앞에 두고 전국 교인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임전무퇴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준비운동에 다름없었다.

이 기도회에서는 반드시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을 心告하도록 지시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 9개 도시에 지도원을 파견하여 기도에 어김이 없도록 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천도교의 3·1운동 준비는 1919년보다 7년 전인 1912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 무렵부터 조선국권회복단 독립의군부 대한광복단 등 여러 독립운동 지하단체들이 극비리에 결성되어 항일독립운동의 싹이 트고 있었다. 천도교는 이러한 기운에 발을 맞추어 은연중에 항일정신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한 오랜 준비 끝에 3·1운동의 구체적인 안을 계획하였으니 결코 러시아 혁명이나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다. 혹자는 1912년의 움직임조차도 1911년의 신해혁명에 자극받아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의 왜곡된 재판기록을 믿고 하는 소리가 아니면 사대주의적 역사 해석의 소치라 할 것이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날 손병희는 천도교에 관한 모든 교무를 대도주大道主 박인호朴寅浩에게 전임專任한다고 통지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손병희는 천하대사(3·1운동)를 위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천도교의 교권을 아래 사람에게 일임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不佞이 우리 교의 교무를 좌하에게 전위함은 이미 10수년에 이르고 있음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니와 오늘 世界 種族 평등의 大機運 아래 아 東洋同族의 공동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시종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에 정치방면에 일시 진참케 되었기에 이와 같이 일언을 신탁하노니 오로지 좌하는 간부제인과 같이 교무에 대하여 더욱 더 만려하여 조금도 망동하지 말고 아 5만년 大宗教의 중책을 善護進行할 지어다. (기미 2월 28일 의암 손병희 心告) 15)

15) 기미 2월 28일 의암 손병희 心告

6. 독립청원이나 독립선언이나

손병희는 오세창 등 3인과의 1919년 1월의 1차 모임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자고 제의하였고 3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지금 조선에서는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차체에 동지가 있다면 일본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하고 돌아갔다.¹⁶⁾

다음 2차 모임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일본정부와 의회에 각각 1통, 조선총독부에 1통의 건의서를 내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월 상순 최린의 집에서 현상윤, 송진우, 최남선이 모여 토의할 때였다. 이 모임에서 독립운동 즉 3·1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신망을 받고 있는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 김윤식 같은 구한국 정계의 원로급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먼저 최남선이 김윤식을 찾아가 교섭하였다. 김윤식은 최남선의 교섭을 거절하였는데 이유는

독립선언이라는 것은 이미 독립이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선언서는 안 된다. 나는 일본 정부에 청원을 하여 보라고 하였다.

김윤식은 그 뒤 윤용구와 함께 따로 일본정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여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불행히도 옥고 끝에 숨을 거두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독립청원서 내지 독립건의서를 내기로 하였다가 2월 상순에 가서야 독립선언서도 내야 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다. 아마도 앞에 나온 대한독립선언서와 2.8독립선언서가 모두 청원서가 아닌 선언서가 된 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손병희의 의견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 그러나 독립선언서 문제는 그 뒤 기독교 측과의 연합을 교섭하는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기독교 측 대표인 함태영이 천도교 측 대표 최린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선언서 발표문제로 의견이 갈라졌다.

천도교 측이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한편 강화회의와 윌슨에게 독립 탄원서를 보내고 우리 조선인민에게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로 하였다. 함으로 나(함태영)는 독립선언서를 인민에게 배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최린은 정부에 독립을 청원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족자결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 만일 그대들이 독립선언

16) 3·1운동비사 손병희선생취조서

서를 배부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우리와 의견이 다르니 함께 합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⁷⁾

이렇게 해서 함태영이 최린과 헤어져서 돌아왔으나 결국 다시 동지들과 의논한 결과 기독교 측도 천도교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독립선언서와 청원서를 동시에 발표하는 절충안으로 낙착되었다.

독립선언서의 발표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최린이었다. 독립청원서의 제출만으로는 민족자결의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꼭 독립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결의를 밝혀서, 온 민족을 격발시키고 또 온 세계에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최린의 생각이요 손병희의 소신이기도 하였다. 최린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언서는 본래 과거의 일을 말함이 아니요 미래의 일을 이룸이니 독립선언서도 독립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다. 물론 일편의 선언서로 완전히 독립된다는 것이 아니요. 이 선언으로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고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영구히 노력하자는 것이요.¹⁸⁾

또한 1월 중순에는 손병희 등 4인 회의에서 독립운동 방략에 관한 3대 원칙이 결정되었다.

- 1) 독립운동은 대중화할 것.
- 2) 독립운동은 일원화 할 것.
- 3)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

이 같은 공약3장의 원칙에 따라 손병희는 독립선언서, 문안은 누가 쓰던지 감정에 흐르지 말고 온건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최린에게 당부하였다. 그리고 그 문 의는 동양평화를 위하여 조선의 독립이 지극히 옳다는 뜻을 일반에게 발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립운동전개의 3대 원칙에 대해 최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일대 독립운동을 일으킬 방략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았으나 자신 있는 성안을 얻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위와 같은 3원칙을 정하였다. 3원칙을 정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世界的 公論으로서 一大風潮를 惹起하고 있는 民族自決主義에 발마추어 일어나는 堂堂한 獨立運動이어야 한다. 민족적 의사표시가 국내외 여러

17) 3·1운동비사, 함태영선생 취조서

18) 3·1운동비사, 최 린선생 취조서

곳에서 구구하게 일어나 서로 일치되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운동방식이 폭력화하게 되면 일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구실로 삼아 어떤 포악한 무단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금차 운동은 월슨 씨가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外的 環境과 우리의 自主 精神의 傳統에 의한 독립운동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독립선언서의 초안은 최남선이 맡아 쓰게 되었다. 최남선의 선언문은 2월 26일 천도교가 빛더미에 올라서면서도 이를 팔지 않고 운영해오던 인쇄소 보성사(서울 수송동)에서 2만1천부를 찍어서 극비리에 전국에 배포하였다.

7. 천지개벽과 세계의 위인 손병희

1913년 아직 3·1운동이 일어나기 6년 전에 손병희는 교도들에게 자신의 지도자론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인간생활은 크게 사상생활, 학문생활, 노동생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사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학문생활 하는 사람과 노동생활 하는 사람을 부릴 수 있으나 노동하는 사람이 학문하고 사상하는 사람을 부릴 수는 없다. 난세에는 이것이 뒤바뀌기 때문에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이다.¹⁹⁾

다시 말해서 지도자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문하고 노동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난세가 오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천지개벽과 같은 3,1운동 --천도교에서는 3·1운동을 천지개벽으로 보았다 --(3·1운동)을 지도자 없이 이루어 내기는 어려웠다. 손병희 자신이야 말로 사상생활을 하는 인간으로 3,1운동의 지도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손병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구구하다. 그러나 선생이 서거한 1922년 당시의 임정이 발행하는 『독립신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생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다.

2천만 배달민족을 대표하여 반만년 대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선언한 손병희 선생이 옥고를 치르시다 병을 얻어 출옥, 귀택하여 여러 날 치료를 받았으나 마

19) 趙基周, [東學의 原流] 천도교중앙총부, 1977

침내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 없고 지극한 애도의 마음을 금할 길 없도다.

선생은 한반도의 기적이요 세계의 위인이니 3백만 문도는 聖師로 신앙하며 2천만 민족은 선배로 추모하고 온 천하 창생은 志士로 추모하였으니 이 것이 어찌 선생 일신의 영예와 공업이겠는가. 실로 선생은 우리 민족의 冠冕이요 영예라 할 것이다. 20)

계속해서 『독립신문』은 과란만장했던 선생의 일생을 일희백비요 천신만고였다고 회고하면서 선생은 청산에 묻혔으나 그의 정령은 우리민족의 청구민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선생의 일생을 회고하건대 一喜百悲요 千辛萬苦라. 寒門에 나시어 난세에 처하였다. 어른이 되어 동학에 투신하고 정치 혁명을 기도하여 甲午風雲에 휘말리시더니 이용구 등이 一進會를 조직하여 나라를 팔아 榮華를 찾으니 선생은 대노하여 이들을 몰아내고 蒼生을 廣濟하고 輔國安民하는 애국애족의 天道教를 다시 만들었다.

민국 원년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國恥를 일조에 씻어내어 萬代國基를 영원히 광복하고자 32명의 동지와 더불어 2천만의 동족을 이끌고 전 세계에 獅子吼로 대한독립을 선언하였다.

선생의 백골은 비록 靑山에 묻혔으나 선생의 정신과 丹誠은 靑丘民心에 깊이 인상된지라. 고로 선생의 長逝를 애도함과 더불어 선생의 精靈이 우리 민족과 함께 永生할 것을 축복하나이다.

손병희를 필두로 한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당시의 역사적 평가를 그대로 반영한 논설이었다. 그러나 『독립신문』은 선생이 이미 1910년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독립운동의 준비를 하셨던 일은 모르고 있다. 3·1운동이 10년에 걸친 선생의 각고 끝에 일어난 비밀을 모르고도 아니 알면서도 선생을 반도의 기적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의 존재는 기적이었는지 모르나 3·1운동은 결코 반도의 기적이 아니라 선생의 노력의 결과이었던 것이다.

독립신문은 또 손병희 선생의 추도회를 개최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당시의 임시 정부가 정치 싸움의 도가니 속에 빠진 것을 개탄하면서 선생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 주기를 기원하였다.

지난달 19일 서거한 손병희씨의 추도회를 본 6월 5일 하오 8시 거행하였는데 수백 명의 동포가 참석하였다. 민단장 김철씨가 개회를 선언하고 박은식씨가 추

20) 故 손병희 선생을 弔하노라 (독립신문 1922. 5. 27)

도문을 낭독하고 신속씨가 비감한 어조로 선생의 역사를 진술하였다.²¹⁾

이용구가 일진회를 조직하였을 때 선생은 저들과 분립하여 布德天下 廣濟蒼生을 부르짖어 을사 12월에 천도교를 천하에 선포한 것만 보아도 선생의 果斷性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계가 七零八落하고 八分五裂 됨에 따라 선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집니다. 수만의 교도를 하나같이 포용하여 오시던 선생이 56인의 인재를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선도자에게만 맡기고 쌀쌀하게 가시니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분투의 생활로 일생을 마치신 선생은 우리 獨立大軍이 敵京의 陷落을 未遂한 이때에 세상을 영결하셨소이다. 바라옵건대 선생의 육신은 異界에 계실지라도 정신은 항상 우리 사회에 유숙하시며 영혼은 늘 大韓民衆의 血脈에서 약동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독립신문』 기자는 선생과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 두 토막을 전해주었다. 하나는 아무리 붓과 말로 싸워봤댔자 바둑알 하나 던지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요 들은 기독교나 천도교나 종교인 데는 매한가지지만 기왕이면 수입된 종교보다 우리 조상을 알기 위해 천도교 교리를 알아달라고 한 말이었다.

오호라! 선생은 서거하셨도다. 선생이 적의 감옥에서 무리한 악형과 고통으로 반신불수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은 “붓과 말로 백번 싸우는 것이 바둑알 하나 던지는 것만 못하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西敎나 천도교나 종교인 것은 일반이지만 천도교는 우리 민족의 손으로 된 것이고 서교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니 우리 조상을 알기 위해 천도교의 교리를 알아 달라” 고 하셨습니다.²²⁾

8. 맺음말

최린의 자서전에 보면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천도교인은 15명, 기독교인은 16명 그리고 불교승려가 2명. 합해서 모두 33인이라 하였다. 천도교인으로 민족대표가 된 사람은 손병희선생을 비롯하여 김완규,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한묵,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오세창, 최린, 홍병기, 홍기조 등 15명이다. 이들 가운데 손병희와 최린, 오세창, 권동진 등 3인은 3·1운동을 발기한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최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특히 33이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33에서 2를 빼면 31이 되는데 과연 33인 중의 한 분(천도교인 양한묵)이 피체 직후 옥사하셨고 다른 한 분(기독교인 김병조)은 도장을 맡기고 상해로 망명하였다. “1은 2를 낳고 2

21) 손병희씨 추도회 6월 5일 慕爾堂에서 상해 교민단 주최로 (독립신문 1922. 6. 14)

22) 이상 追悼 손병희 선생 (『독립신문』 1922. 6. 3)

는 4를 낳지만 3은 무한을 낳는다.” 는 말이 있다. 그런 3이 둘이나 있으니 민족대표 33인은 우리 민족사에 담긴 무한한 정신유산을 계승하였고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던져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족대표 33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였다.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평가는 3·1운동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 일제는 심지어 3·1운동을 1917년에 일어나 일본의 「쌀 소동」(米騷動)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소요사건이라 모독하였다. 또 사회주의자들은 3·1운동을 러시아 혁명의 연장이라 하였고 사회주의 혁명의 맹아라는 당치도 않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소위 실증주의 사학을 표방하는 역사가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기술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 김일성 정권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평양에서 일으킨 독립운동으로 날조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민족대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3·1운동마저도 지도자 없는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각급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어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지난날의 역사 해석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암義庵 손병희孫秉熙(1861-1922) 선생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의 3·1운동 계획과 준비과정을 소개하였다. 천도교에 대한 필자의 무지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과오가 있을지 모른다.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참고] 필자의 3·1운동 관계 주요논문

1. 3·1운동에 있어서의 폭력과 비폭력 <논문>
『三一運動50周年記念論叢』 (동아일보사, 1969) 소수
2. 3·1운동의 성격문제 박성수, 『獨立運動史研究』 (창작과 비평사, 1980) 소수
3. 동학과 근대민족운동 『新人間』 7. (신인간사, 1985)
4. 결코 오래가지 못할 북한의 3·1운동 왜곡 『北韓』 1985년 3월호
5. 박은식의 [血史]에 나타난 3·1운동관 『韓國近代史論叢』 (윤병석교수 화갑기념, 1990)
6. 박성수, 『韓國獨立運動史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소수
7. 3·1운동 『재발견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8. 3·1운동과 비폭력 정신 『21세기 세계평화와 비폭력정신』 (2002. 2.26-28 서울)
9. 박성수. 3·1독립운동과 김덕원 의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3년)